

울프의 『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의 문제: 니체의 ‘생성’을 중심으로

김 금 주

I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근대 이후 인류가 믿어온 자연의 지배와 과학과 이성에 바탕을 둔 진보라고 하는 근대의 이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근대화 이후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삶이 균열되고 희생되는 또 다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니체는 이를 인간의 상실로 보았고, 신의 죽음 이후 이성에 의해 진리를 찾으며 이를 토대로 자기 보존을 하려는 근대인들은 오히려 자기 부정과 평균성에 기초한 대중화로 인해 퇴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의 문제를 문화적 퇴락과 분열, 타락, 창조력의 쇠잔을 초래하는 병적 현상으로 파악하며 이를 ‘생리적 데카당스’의 표현으로서 허무주의라고 진단한다(『유고』 니체전집 21, 403). 그러나 니체의 허무주의는 부정적이고 허무주의적 현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능동적 자기 극복의 계기를 자기 안에 함축하고 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이중적 의미로 해석하는데, 정신력의 하강과 퇴행으로 이해되면 그것은 “수동적 허무주의”이고, 고양된 정신력의 기호로 읽히면 그것은 “능동적 허무주의”이다(『유고』 니체전집 20, 22-23). 능동적 허무주의는 “허무주

의를 이미 자신의 내부에서 끝까지 체험해본 자”(『유고』 니체전집 20, 518)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형이상학적 해석들을 해체하고 파괴하여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생산하려 한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는 허무의 극단에서 이를 극단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이렇게 허무주의 내에서 이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부단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 과정은 자기비판과 갱신이라는 모더니즘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마샬 버먼(Marshall Berman)에 따르면 근대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험, 권력, 기쁨, 성장, 우리 자신과 세계의 변혁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위협하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을 말한다”(15). 그리하여 “근대성은 영원한 해체와 갱신, 투쟁과 모순, 모호함과 괴로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5). 버먼은 이러한 근대화가 문화의 영역에서도 놀랄만한 다양한 비전과 이념을 성장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대체로 니체가 우리시대의 다양한 모더니즘의 일차적 원천자¹⁾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한다(19).

그런데 버먼은 허무의 극단에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 가능성을 찾은 니체를 비롯하여 마르크스(Karl Marx),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도스토예프스키(Feodor Dostoevsky) 등과 같은 19세기의 위대한 모더니스트들이 근대적 삶에 대응하는 심오하고 창조적인 정신이 20세기 사상가들이 인식하고 구현한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강대한 생명력이 있다고 주장한다.²⁾ 하지만 필자는 20세기의

1) 존 버트 포스터 주니어(John Burt Forster, Jr.)는 모더니즘이 “가까운 과거와 단절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니체의 유산”(417)이라고 이해한다. 브래드베리(Malcom Bradbury)와 맥패린(James McFarlane)은 모더니즘의 본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별한 규범으로서 그리고 드러냄의 특별한 상태에서 현대적 사상가의 핵심적인 사고가 니체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30). 그리고 프란츠 쿠너(Franz Kuna)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니체의 통찰과 모델들이 묘하게도 현대 소설의 구조와 은유적인 디자인을 결정지었다”고 말한다(451).

2) 버먼은 현대기술을 찬양한 미래파와 1차 대전 이후 ‘기계미학’의 새런된 형식에서 찾은 모더니즘의 방법, 그리고 그 후 60년대의 모더니즘은 이전 모더니즘의 성격을 변질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근대성에 대한 최근의 태도가 1세기 전에 비해 좀 더 조야하고 단순하며, 덜 미묘하고 덜 변증법적인 경향을 띤다고 지적한다(24-29). 버먼이 20세기 모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도 버먼이 강조한 19세기의 모더니스트들 못지않게 근대의 모순을 첨예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환경에 저항하지만 동시에 모순된 근대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창조성과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모더니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울프는 런던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근대적 삶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여준다. 말콤 브래드베리(Malcolm Bradbury)의 설명처럼, 런던과 같은 근대 도시는 상이한 역할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마찰과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의식이 싹트는 장소로서, 문화적으로 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과 가치와 표현에서의 위기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다(97-98). 이 작품에서 울프는 근대 도시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순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순되고 분열된 근대 생활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립에 필요한 활력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 삶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갱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파도』(*The Waves*)에서 울프는 근대 생활의 모순과 대면하는 인간의 자기 창조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한다.

울프가 탐구한 이 자기 창조의 문제는 니체가 근대의 모순과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부단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통한 자기 창조와 맥락이 닿아있다. 니체가 말한 부단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은 바로 그가 주장한 “생성 becoming”으로 나타난다. 니체의 생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니체의 철학은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의해 계승되었고³⁾, 이 생성 개념이 포괄하는 이성, 진리 담론, 도덕, 단일한 주체에 대한 비판은 푸코(Michel Foucault), 데리다(Jacques Derrida)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과정 중에 있는 주체 subject-in-process”라는 개념에서도 니체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니체의 철학은 모더니즘뿐 아니라 후기구조의, 포스터모

더니즘이 덜 생명력이 있다고 한 점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논의를 본고에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 3) 들뢰즈는 자신의 이론적 개념인 ‘차이’와 ‘반복’이 니체 사상을 연구하는 가운데 탄생했다는 사실을 『니체와 철학』(*Nietzsche and Philosophy*)에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며,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 『의미의 논리』(*The Logic of Sense*), 『앙티 오이디푸스』(*Anti-Oedipus*)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철학적 경력 전체를 통해 출현한 다양한 사상들이 『니체와 철학』에서 이루어진 니체 해석 속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서동욱 274).

더니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니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울프의 작품에서도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 특히 니체의 생성 개념이 잘 드러나는 『파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파도』는 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후기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80년대 후반이후로 미노우-핑크니(Makiko Minow-Pinkney)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크리스테바의 “과정 주의 주체”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했다. 리사 마리아 루센티(Lisa Maria Lucenti)는 “완전하게 명명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는 부재에 직면하여 개인의 자율성이 붕괴되는 ‘끔찍한 순간’”(71)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 순간이 받아들여지고 거부되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주체와 구조적인 면에서 주체적 존재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점을 설명한다. 줄리 밴디버(Julia Vandivere)는 울프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주체 구성의 문제를 탐구하여 단일한 자아와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을 비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한다. 탐린 몬슨(Tamlyn Monson)은 “크리스테바의 과정 중의 주체를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윤리 철학과 관련시키는 이론적 틀 내에서” “소설의 주체성의 은유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언어, 역사, 사회적 관습과 갖는 관계를 탐구”(174)하고 있다.

필자가 『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 과정의 통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이 니체가 말한 ‘생성’을 긍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생성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은 초월적 세계를 대신하여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형이상학적 진리를 찾고 이를 토대로 자기를 창조하기보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자기 부정과 평균성에 안주하는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극복하여 부단한 변화와 파괴, 그리고 부단한 창조를 긍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니체가 근대의 부정적 현상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철학적 작업은 울프가 작품을 통해 고민하고 실천하려던 작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울프보다 앞 선 세대이자 후세대에게 철학적인 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니체의 사상을 검토하면서 울프의 『파도』를 읽는 작업은 울프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자기 창조에 관한 생각들을 점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⁴⁾ 이처럼 니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파도』는 근

4) 울프가 니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문제이다. 브룸즈베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일원이었던 포스터(E. M. Forster)는 「내가 믿는 것」

대 대중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또한 이 모순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모더니즘의 역동적 정신을 발현할 뿐만 아니라 생성을 긍정하는 자기 창조의 과정을 통해 아직도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파도』에서 여섯 명의 주인공들은 거대화되고 대중적이 된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한편으로 그들은 강한 불안함을 드러내며 위안이 되는 다른 질서를 찾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신이 처한 현재의 삶을 거부하는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니체가 주장하는 자기 창조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필자는 특히 여섯 명의 주인공들 가운데 나머지 다섯 명의 삶과 상호적이고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버나드(Bernard)가 자신을 창조하며 생성의 세계를 긍정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근대 사회 속에서 근대인들은 강한 불안을 느끼며 거대화된 사회 조직과 공격적인 타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니체가 보기에 이성에 의해 객관성, 과학성, 진리를 찾으며 이를 토대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근대인들은 자기 부정과 평균성에 기초한 대중화로 나아가며 맹목적으로 자기 보존에만 집착하는 현상을 보인다. 니체는 자기극복을 통한 자기창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다수로서의 모험 없는 안락, 자기보존, 평균성에의 안주 등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을 ‘무리 본능의 소유자,’ ‘약자,’ ‘천민,’ ‘실패자’ 등으로 부른다. 그리하여 니체는 평균성의 본능에 사로잡혀 평균인, 대중인, 무리로 살아가는 인간을 자신에게서 소외되고 “왜소화”(BGE 163)된 존재로 보고, 이러한 현대인에게서 “더 이상 원하지도

(“What I Believe”)에서 부정적인 함의로 해석한 권력(force)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니체 주의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과 폭력의 부재를 누군가가 ‘테카당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으로 미루어 볼 때 포스터가 속했던 브룸즈베리 그룹이 니체의 글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 울프도 그들을 통해 니체의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포스터가 니체를 이해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않고, 더 이상 평가하지도 않고, 더 이상 창조하지도 않”는 “크나큰 피로”(Z 111)를 발견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Zarathustra)는 이러한 인간을 “마지막 인간”이라 부르며 왜소화된 인간에 대해 조소한다. “대지는 작아져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작게 만든 마지막 인간이 뛰며 돌아다닌다.... 목자는 없고 가축의 무리만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원하며,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누구든 다르게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간다”(Z 46). 울프의 작품에서도 자기보존과 평균성에 안주하고자 하는 왜소화 된 인간의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소화 된 인간들의 평균적인 가치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군중들의 맹목적인 애국심, 그리고 이 애국심을 복돋아 남성다움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니체는 이러한 애국심을 “늙은 신과의 전투에 지쳐 있고, 지친 나머지 이제 새로운 우상을 섬기”(Z 76)는 행위로 보았으며, 국가를 “모든 백성이 자신을 상실하게”(Z 77)하여 자기창조의 행위에 걸림돌이 되는 무리 본능을 고취시키는 곳으로 비판하고 있다.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에서 제국주의적인 애국심을 부추기고 남성성을 예찬하는 국가적인 대중화의 전략을 비판한다면, 그녀의 단편 「해변의 유원지」(“The Watering Place”)에서는 창조성이 결핍되어 왜소화된 채 자기를 상실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비판하여 그들을 해변에 있는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조가비들처럼 “조가비 같은 표정,” 즉 “진짜 살아 있는 유기체가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게 된 것처럼 지각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조개류”라고 칭하며 그들의 왜소화된 된 상태를 묘사한다(291).

『파도』에서는 평균성과 대중성의 요구가 편재한 사회에 대응하는 주인공들의 불안한 의식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사회의 가치에 맞서 그들은 현재의 세계와 다른 질서,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섯 명의 주인공들 가운데 특히 여성인 로다(Rhoda)는 거대화된 대중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불안함을 보인다. 로다는 자신은 얼굴이 없으며 지니(Jinny)와 수잔(Susan)의 세계는 실재하는 세계이지만 자신은 여기에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⁵⁾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실체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데 그것은 자신이 끔찍하다고 느끼는 인간의 얼굴이다. 그녀는 “이름과 얼굴에만 집착한다”(31)고 말하

5) Virginia Woolf, *The Waves* (London: Penguin Books, 1992), 31쪽.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 수로 표시한다.

지만 그 “인간의 얼굴은 끔찍”(120)할 뿐이다. 로다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얼굴은 결국 그녀가 속한 사회의 상징질서가 요구하는 얼굴,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의 얼굴이다. 얼굴이 없다고 말하는 로다가 소중히 여기는 하얀 색, 수반 위의 하얀 꽃과 하얀 공간을 통해 그녀의 얼굴 없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며 이 하얀색은 어떤 외부 세계의 상징 질서의 기표도 섞이지 않은 색을 의미한다. 그녀는 이러한 얼굴을 요구하는 사회로 향하는 문을 열면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공포가 돌진하며 경멸과 비웃음이 자신을 찌른다고 느낀다. 그녀는 숨겨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자신이 가장어리다고 외치며 공포를 표출한다(78). 그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거짓과 머리 숙임과, 고난과, 능변과 예속의 요구”이며 “하루를 지내기 위해...붕괴를 요구”하는 것이다(156).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타락”이지만 자신도 결국 굴복하고 말았고 자신이 파도 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156-58). 이런 상황에서 로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로부터 면제된 세계”(79)를 꿈꾼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록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하얀 공간처럼 “하얀 형상”을 향해 용기를 내서 가볼 것이며 거기서 자신의 공허함을 꿈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한다(104). 하지만 로다의 꿈은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그녀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네빌(Neville)은 “우리는 세계의 황폐와 추악성에, 우리를 밝아 문개는 균중의 끊임없는 소란에 맞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돼”(137)라고 말하며 대중화된 세계의 황폐함을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 “로마적인 엄격성과 덕망을 갖춘 작가”(137)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하며, 라틴어 문법의 엄격성을 탐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완벽성에 몰입한다(65, 137). 한편 루이스(Louis)는 그 사회의 대중적 가치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이들과 대조된다. “호주 억양을 쓰고 브리스베인 은행가인 아버지를 둔”(13)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루이스는 언제나 보통의 영국인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자신의 차이가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루이스는 예배당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들을 떨쳐버린다”(24)라고 말하며 교장의 권위와 십자가가 동정의 대상이 되기 싫어 울었던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한다. 루이스는 자신이 “평균적인 영국인”(69)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그들처럼 되려한다. 그러나 비록 그는 자신을 국외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에 따라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걷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이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70) 그는 어떤 다른 질서, 더

나은 질서(28), 영원한 대의명분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현재의 순간에서 수천 년 전 이집트 시대와 연속성을 찾는다(48-49). 그렇지만 결국 루이스가 세속화된 가치를 쫓는 행위는 니체가 능동적인 힘⁶⁾이라고 한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이러한 차이로부터 쾌락과 긍정의 대상을 만드는 힘”(Deleuze 61)이 발현되도록 하여 루이스가 “스스로 법칙을 새우는 자, 스스로를 창조하는 자”(GS 266)로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루이스의 내면의 충동들은 억압되어 그에게 다만 음울하게 철썩이는 파도소리로, 혹은 사슬에 묶인 짐승이 해안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로 들려오고(49), 그는 스스로의 욕망에서 소외된 채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루이스가 의지했던 교장의 권위로 대변되는 학교의 질서와 권위는 로다와 수잔에게는 그녀들의 정체성을 뺏고(23-24),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시민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수잔은 이러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수업시간, 서열, 규율,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이곳저곳에 있어야 하는”(39) 억압으로만 느끼며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끝만 번지르르하다”(23)고 생각할 뿐이다. 또한 십자가로 대변되는 종교의 권위는 네빌로부터 비판받는다. 네빌은 예배당에서의 기도시간이 자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제한하는 해석을 하는 교장의 권위와 그러한 권위에서 해석되는 종교에 대해 그는 “권위 있는 언어도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러워지기도 한다. 나는 이 서글픈 종교를 조롱한다”(25)고 말한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서글픈 종교를 비판하고 있다.

니체가 그리스도교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은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교회와 사체에 의해 신이 죽음에 이른 서글픈 원한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도덕이다.⁷⁾ 니체는 그리스도

6) 니체는 힘을 능동과 반동으로 구별하여 이것이 힘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라고 설명한다(『유고』 니체전집 20, 220). 반동적인 힘은 “적응의, 부분적인 제한의, 실리를 목적으로 하는 힘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분리된 힘”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능동적인 힘은 “조형적이고 지배적이며 굴복시키는 힘이며, 그것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가는 힘이고,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이러한 차이로부터 쾌락과 긍정의 대상을 만드는 힘이다”(Deleuze 61).

7)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사체에 대하여」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와 사체에 의해 신이 죽었다고 역설한다(114-17). 그리고 『도덕의 계보』(On the Genealogy of

교를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BGE 4)라고 부르며 철학적 이분법의 완벽한 종교적 형태라고 비판한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형이상학적 초월 세계를 자명하게 믿었던 형이상학적 이분법적 철학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세계의 종교로 보고 있다. 니체에 의하면 대중적인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학적-종교적 초월 세계를 구상해내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으며 그 세계의 진리성을 믿는다(재인용 백승영 204). 인간이 이러한 변화하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 기대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니체의 주장처럼 인간이 “변화와 행복이 배타적”(재인용 백승영 126)이라고 인식하여 “변화와 사멸성”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유고』 니체전집 21, 414). 따라서 인간은 니체가 “형이상학자의 심리학”이라고 칭한 이분법적 철학으로 인간의 행복을 차단하는 변화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고통과 불신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 세계는 참된 세계, 모순 없는 세계, 가치가 충만한 다른 세계이다(백승영 126).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라고 부른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급속한 전파는 플라톤 철학이 서양인의 삶과 문화 전반에 걸쳐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하게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백승영 188), 니체가 보기에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세계 해석은 인간의 대중화를 공고히 하여 인간을 퇴화시켰다.

그런데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세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불감증이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니체에 의하면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를 제시한 신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후 “객관적 정신”(BGE 97)에 대한 믿음이 들어서면서 인간은 “몸과 정신은 균형의 중심을 결여”(BGE 100)하게 되고 “병들고 퇴화되는 의지”(BGE 100)만을 보이며 “자기 왜소화”(BGE 163)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니체는 객관적 이성으로 인간 세계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근대학문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고 전문화 되었지만(BGE 95), “생명력의 일반적인 감소”(TI 100)와 “생리적 퇴행인 데카당스”(AC 137)의 현상만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니체는 초월적 세계나 합리적 이성에 기대는 대신 대지와 몸으로

Morals)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구세주라는 우회로를 통해 유대적 증오, 그들의 숭고한 복수욕이라는 마지막 목적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사람을 끈다기보다 오히려 더 소외시킨다고 지적한다(35-36).

돌아가라고 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피안이나 천국을 강조하는 배후세계론자, 몸을 경멸하는 자, 죽음을 설교하는 자에게 대항하여 “대지에 충실하라”(Z 42)고 “대지의 뜻을 전해주는” “강건한 몸에서 울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Z 61).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이 몸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유, 느낌, 욕구의 역동적 복합성이다”(김정현, 『니체의 몸 철학』 172). 니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성’이라고 불렀던 ‘작은 이성’으로서의 정신은 커다란 이성으로서의 몸에 속한다고 주장하며(Z 61-2), 의식적 삶의 전부도 “근본적인 동물적인 기능, 무엇보다 삶의 상승 수단의 가능한 한의 완성에 봉사하고 있는 것”(WP 355)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몸의 특성인 힘의 추구를 본질로 하는 충동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몸을 길잡이로 삼으면 거대한 다양성이 명백”(WP 281)해진다고 주장한다. 후에 힘에의 의지로 표현되는 충동에 대해 “특정한 종류의 지배욕이며 모든 충동은 자신의 관점을 가진다. 모든 충동은 이 관점을 그 밖의 다른 충동들에게 규범으로 강요하려한다”(『유고』 니체전집 19, 383)고 설명하며 이러한 충동들이 세계를 해석한다고 한다.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충동들은 힘에의 의지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그는 인간을 “‘힘에의 의지들’의 다양성”(『유고』 니체전집 19, 282)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니체는 형이상학적인 이분법이나 객관적 이성에 기댄 세계 해석이 아니라 대지와 인간의 몸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변화와 파괴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생성 becoming’이라는 점을 주시시킨다. 그리하여 생성하고 변화하는 삶을 긍정하는 기술, 즉 “생성의 무죄를 입증”(『유고』 니체전집 16, 314)하는 삶의 기술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성에 대한 긍정은 그의 디오니소스의 개념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창조와 해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는 세계의 생명 원리이다.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며,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으며, 소모되지도 않고 오히려 전체로서는 그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하나의 확고한 청동 같은 양의 힘이며, ... 자기 안에서 휘몰아치며 밀려드는 힘들의 바다며, 영원히 변화하며, 영원히 되돌아오고, 엄청난 회귀의 시간과 더불어, 자신의 형태가 빠져나가는 썰물과 밀물로, 가장 간단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것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충만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모순의 놀이로부터 조화의 즐거움으로 되돌아오고, 이러한 동일한 스스로의 궤도와 시

간 속에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영원히 반복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어떠한 포만이나 권태나 피로도 모르는 생성이다—: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라고 하는 이러한 나의 디오니소스적인 세계, 이중의 관능이라는 이러한 비밀의 세계, 이러한 나의 선악의 저편의 세계... (WP 550)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생성에 존재의 성격을 부과하는 일—그것이 최고의 힘에의 의지’(WP 330)이며, 이 힘에의 의지는 “고안해 내고, 의욕하고, 자기 부정과 자기를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생성”(WP 331)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는 현 상태의 극복을 통한 강화와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배를 원하고, 더 많이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WP 367). 이처럼 자기극복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것은 니체에 의하면 자기실현의 과정이며 가치의 창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가치의 창조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충실한 인간이 부단하게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는 “창조하는 자들이여! 가치의 변천, 그것은 창조하는 자들의 변천이기도하다. 창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는 끊임없이 파괴를 하기 마련이다”(Z 85)라고 말하며 변화와 파괴가 생성의 과정이며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창조자에 의해 가치도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그대는 그대를 넘어서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대는 보다 높은 몸을, 제일운동을, 스스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창조해야 한다—그대는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한다”(Z 95)고 하며 부단한 자기극복과 창조를 강조한다.

III

변화와 사멸성은 울프에게도 고민스러운 문제였다. 그녀는 일기에서 인간의 삶이 연속적이며 견고한 것인지 혹은 변화하는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비록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삶에서 사멸하지 않는 어떤 연속적인 것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삶은 아주 견실한 것일까? 아니면 매우 변하기 쉬운 것일까? 이 두 모순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늘 그러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 모순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세계의 깊은 곳까지 다르다. 또한 이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져 버릴 투명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파도 위를 구름처럼 지나갈 버릴 것이다. 비록 우리가 변하고, 차례로 잇달아 것처럼 빠르게, 빠르게 날아가 버리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간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스스로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WD 138)

그러나 울프가 뜻하는 연속성은 초월적인 질서나 피안의 세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변화하지만 연속된다는 것은 니체가 주장하는 생성과 유사한 것이다. 즉 그녀는 끊임없는 변화와 해체를 거듭하며 창조해가는 과정을 믿으며 변화를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울프는 일기에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의 단편을 드러낸다. “그만큼 영혼이 변한 것이다. 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태양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영구히 바뀌어간다고 믿는다. 나의 낙관주의는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WD 181).

『파도』의 주인공들에게도 변화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위안이 되는 안정된 것, 즉 영속적이고 참된 것에 대한 동경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친구 퍼시벌(Percival)은 이러한 그들의 동경이 투사된 인물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들에게 그는 더 의미 있는 인물이다. 루이스는 그를 중세 지휘관의 “장엄함”(26)이 있다고 하며 그의 뛰어난 남성적 품모를 부러워한다. 네빌은 그와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가 나타나자 “모든 장애가 사라졌다. 혼돈의 통치는 끝났다. 그가 질서를 부여했다”(91)고 말하며, 버나드는 그를 “전통적”이며 “영웅”(91)이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중세적 영웅과 같은 인물로 예찬되는 퍼시벌은 남성중심적인 가치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주인공들의 시대에는 찾을 수 없는 것, 이제는 사라진 가치에 대한 동경이 반영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성배의 전설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영원한 진실을 찾고자 떠나는 영웅과 동일한 이름의 퍼시벌은 이 전설의 영웅처럼 주인공들에게 변하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세계의 진실을 찾아 줄 수 있을 듯한 영웅과 같은 상징적 인물이다⁸⁾. 하지만 그의 죽음은 퍼시벌이 상징하는 영원한 위안의 세계는 더 이상 존

8) 루이스 폴스키(Louise A. Poresky)는 퍼시벌을 성배를 찾아 떠나는 중세 기사와 관련시키는 것은 그를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 혹은 생명력으로 특징짓는다고 설

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퍼시벌의 죽음 후 버나드는 퍼시벌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은 이제 텅 비어 있을 뿐이어서(116), 자신의 나약함이 그를 짓누를 때, “이 약점들에 대적할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18)”고 말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퍼시벌이라는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116)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안의 세계를 찾을 수 없게 된 버나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안정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실험이고 모험이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미지의 것들과 끊임없이 섞이고 있다”(88)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실험이 곧 창조의 과정이고 미지의 것들과 섞이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힘들의 상호 작용인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힘에의 의지는 “육체의 영양섭취, 거주방식, 생활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수천 가지 실험”(『유고』 니체전집 16, 881)을 통해 기존 가치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므로 실험 없이는 추구될 수 없다. 이러한 실험의 주체도 실험의 결과로 산출되므로 고유한 본질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이며, 모든 실험들, 즉 “모든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것이다”(D 72). 버나드는 자신의 주체의 동일성을 회의하고 자신의 다양성을 느끼며, “나는 하나이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56)라고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자신을 다면체로 느낀다(87). 몸이라는 상상력(169)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지니도 “이 우주에 어떤 것도 불변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33)며 변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느끼고 있다. 그녀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끼면 곧 다른 배합, 다른 패턴이 되겠지... 나의 존재의 질서가 변하는 것을 느껴... 그들 집단의 자식 같은 견인력이 내게 영향을 미쳐”(161)라고 말하는데서 니체가 설명하는 힘들의 다양성,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버나드는 퍼시벌과 식사할 때 화명의 카네이션이 “여섯 개의 인생에서 만들어진”(175) 여섯 개의 꽃잎인 것처럼 자신이 회상하는 인생도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며 “나는 한 인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인 것이다....지니, 수잔, 네빌, 로우다, 아니면

명하고 그를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한 상징이라고 한다(200-201). 필자는 그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점에서 폴스키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타락이전의 상징이라는 설명은 필자의 논지와 다르다.

루이스,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212)고 생각한다. 버나드의 이러한 생각에는 “그것만으로 자족적인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사물에게도 전혀 없다”(WP 532)라고 주장하며, 주객 이분법의 사유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자기로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니체의 울림이 있다. 니체는 “우리는 한 그루 나무에 달린 꽃봉오리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되려 하며, ‘나’와 모든 ‘나 아닌 것’에 관한 환상을 지닌다. 자기 자신을 그러한 환상적 자아로 느끼는 것을 중단하라!... 자아의 오류를 발견하라!... ‘나’와 ‘너를 넘어 우주적으로 느껴라!”(재인용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320)라고 말한다. 니체가 주장하는 자기창조는 이처럼 동일한 자아에서 벗어나 타자 뿐 아니라 우주와의 교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버나드의 자기창조는 다양한 힘들의 상호작용과 우주적 교감의 역동성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변화를 실험과 모험으로 긍정할 수 있는 버나드는 어느 소녀가 그를 보며 “늙었다”(209)고 한 말에 잘못 안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 울프가 나이 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영혼이 변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에게 그것은 다만 “시간이 사물의 배열을 한 번 더 흔들어 나온 것”(209)이며 “다른 단계에 도달한 것”(143)이다. 그는 다른 단계만 있을 뿐 단계에 끝이 있는, 어떤 결말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회의한다(143). 버나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어떤 결말, 즉 죽음이라는 결말에 이른다기보다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 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버나드는 죽음에 대한 상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친구들에 대한 기억과 평생 그를 감동 시킨 오래된 충동, 노랫소리를 기억하며 “이렇게 섞여 흘러가는 것이 일종의 죽음인가?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의 결합인가?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의 암시인가?”(215)라고 묻지만, 그는 그러한 상념을 회피하기 위해 형이상학적이거나 피안의 세계에 기대어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창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부정한 어깨에 기록되지 않은 자질구레한 자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아니다.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양도 아니다. 우리는 창조자이다”(109)라고 말하는 버나드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창조하는 생성의 과정으로서의 삶이다.

작가로서 버나드의 자기 창조는 글쓰기를 포함한다. 그는 사실적인 정확성을 추구하는 글쓰기의 관습을 “극단적인 정확성, 질서 정연한 군대의 행진”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의 방편, 거짓말”(196)이라고 말한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저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부서진 꿈, 동요, 거리에서 들려오는 절규들, 중간에서 끊긴 문장이나 광경의 거세게 밀려드는 흐름”(196)이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버나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속, 즉 “하나의 일이 재빨리 처리되면 순서대로 다음 일에 다다른다는 식으로, 명백하고 논리적인 이야기”(193)가 아니라 “하나의 짙는 소리, 하나의 신음소리”(193)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글쓰기의 방식은 울프가 「현대 소설」(“Modern Fiction”)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작가라면 사실주의적 글쓰기의 관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서 변화하고, 미지의, 무한한 정신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106). 또한 울프가 일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순간을 그려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순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든지 간에, 순간 전체를 그려 낼 것. 그 순간이 생각과 감각이 합쳐진 것이라고 하자. 바다의 소리 같은. 폐기물과 죽은 것들은 이 순간에 속하지 않은 것을 포함시키는 데서 온다. 사실주의자들의 저 끔찍한 서술 방법.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진행되는 것. 그것은 거짓되고, 비현실적이고, 단지 관습적인 것에 불과하다. (WD 138)

이렇게 순간을 그려내는 울프의 작업은 자신의 창조적 해석이며 자신의 관점을 보이는 것이다. 울프가 「현대 소설」에서 삶 자체보다 삶에 대한 무수한 인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은(106) 바로 그것을 감지하는 주체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상주의, 관점주의는 모더니스트의 원천자가 되는 니체가 이미 주요하게 지적한 것으로 그는 “바로 사실인 것은 없으며, 있는 것은 오직 해석뿐이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어떠한 사실 그 자체도 확인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그대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해석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관점주의(perspectivism)”(WP 267)라고 설명한다. 그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주체의 관점, 해석이 창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터득한 버나드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183)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포착한 진실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구름같이 변화하는 먼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공책을 들고 다니며 문장들을 만들면서, 나는 변화만을 기록

한 것이다. 그림자를, 그림자를 부지런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219)이라고 말하게 된다.

버나드에게 작가로서 자기 창조의 과정은 자기보존이 아니라 자기 극복과 창조를 위한 투쟁을 수반한다. 버나드는 자신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 벽을, 이 보호망을, 애들을 점지하고 커튼 뒤에서 사는 이 생활을, 책과 그림에 둘러싸여 매일같이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얽매이는 것을 때려눕힐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칼은 없는 것일까?”(204)라고 말하면서 자기 보존의 보호망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비록 그는 “인생은 즐거워. 좋은 것이다. 생의 과정 그 자체가 만족스러워. 건강한 보통 사람을 생각해봐.... 월요일에는 화요일이 따라오고, 하루하루마다 행복의 잔물결이 펼쳐지고, 리듬의 곡선이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존재는 나이테를 늘이고, 정체성은 강건해진다”(201)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의 순간적인 현실 안주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창조적인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205). 버나드는 울프가 「과거의 스케치」(“A Sketch of the Past”)에서 “비존재의 순간”이라고 했던 이러한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경멸하여 둔한 칼을 갈아 하나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듯 “쇠락해서 거의 활기를 잃은 물체가 된 나”를 집어들고 매질하여 싸우라고 되풀이해서 말한다. 그리하여 “노력과 분투,”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207). 그런데 버나드는 자신이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가 적이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에서 늘 함께 했다고 말한다.

변화하지만 항상 거기 있는 적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의 존재. 자신이 수동적으로 운반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탐험하자.’ ... 내 생애를 통해 저들은 쫓 거기 있어왔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돌들에 에워싸인 스톤헨지(Stonehenge)에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느끼게 된 적들, 존재들 같았다. (185)

「과거의 스케치」에서 울프도 이와 같은 적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녀는 “일상적 삶의 숨통치 뒤에 숨겨진 적”이라고 말하며 이 적으로부터의 일격을 “표면 뒤에 있는 어떤 진실한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72). 울프가 이 적의 일격으로부터 존재의 순간을 느끼는 것처럼 버나드는 적을 의식하여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 수 없고 자기 극복의 창조적인 투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버나드는 자

신의 창조성이 고갈된 상태를 죽음과 같은 상태로 인식한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해도 더 이상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고, 다양한 말도 떠오르지 않으며, 끝없이 황량한 바다를 뚫고 나올 지느러미도 없는 상태를 “친구들의 죽음보다, 청춘의 죽음보다 더 진정한 죽음이다”(218)라고 느낀다. 이렇게 버나드가 죽음으로 규정하는, 자신의 창조성이 정지된 것을 느끼는 순간은 그의 작가로서 자기실현이 정체되어 중단 없는 생성의 과정이 멈춰진 상태이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버나드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욕망이 용솨음치는 것을 느끼며 그는 죽음의 적에 대항하여 “정복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너를 향해 내 몸을 던지노라, 오오 죽음이여!”(228)라고 외치며 돌진할 때도 그가 대항한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쇠함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를 수동적으로 정체되게 만드는 상태이다. 버나드는 수동적으로 안주하려는 순간이 있지만, 그 때마다 그는 적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언제나 다시 시작한다”(225)고 하는데, 그 순간 그를 적에게 대항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를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재산을 풍비박산 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으고 집합시키고 쌓아올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일어나 적에게 대항할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게 하는 파도”(225)라고 말한다. 그리고 버나드는 이 파도가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고 나의 소유물을 뿔뿔이 흩어지게”(225)하지만, 또한 “전 생애를 통해 쨍쨍 울렸던, 떨어지는 파도의 충격은, 나를 정신이 번쩍 내게 해서”(224), “나로 하여금... 군대를 소집해서 일어나 적에게 대항하게 한다”(225)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문장파도 인연을 끊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서 파도가 일어서고, 부풀어 올라” “다시 한 번 새로운 욕망을, 기수가 처음에 막차를 가하고는 뒤로 잡아끄는 자존심이 강한 말같이 내 밑에서 용솨음치는 어떤 것을 느낀다”(228)고 말한다. 여기서 버나드가 말하는 ‘파도’는 니체가 주장한 “영원한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를 반복하는 디오니소스적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서 힘에의 의지와 유사한 것에 대한 상징이다. 또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한, 마지막 장에서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는 니체가 설명한 “자기 안에서 휘몰아치며 밀려드는 힘들의 바다며, 영원히 변화하며, 영원히 되돌아오고, ... 영원히 반복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어떠한 포만이나 권태나 피로도 모르는 생성”(WP 550)의 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버나드는 자신 안에서 파도가 다시 용솨음치기 전에, 초로의 남자에게 여명은 “일종의 재생”이고 별이 사라지고, 불

은 빛이 장미꽃들 위에 드리우며 새들이 지저귀게 되는 “이것이 영원한 재생, 부단한 삶과 죽음, 또한 죽음과 삶”(228)이라고 하는데, 그는 인생의 황혼에서 영원한 생성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버나드는 우주적으로 교감하는 생성의 세계에서 자기 창조자로서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니체처럼 죽음을 허무한 사멸이 아니라 생성으로 받아들여, “삶의 가장 낯설고 가장 가혹한 문제에 직면해서도 삶을 긍정”(TI 120)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IV

‘대지’와 ‘몸’에 충실 하라는 니체는 인간이 평균화되고 대중화된 자기 소외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주장한다. “퇴화된 인간보다 추한 것은 없다”(TI 89)고 말하는 니체는 “그대는 그대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대 자신의 덕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H 9)라고 주장한다. 『파도』의 주인공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순간은 바로 주인공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대중화의 압력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다. 울프의 주인공들이 이러한 불안에 맞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은 단일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변화시키며 창조해나가는 ‘생성’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자기 창조는 동일한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타자와 상호작용,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울프는 일기에서 『파도』에 대해 구상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한 인물의 성격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묘사”(WD 153)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결국 버나드가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그의 자기 창조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버나드가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고 느끼며 친구들과의 인생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고, 지니가 친구들 속에 자신이 끼어 “다른 배합, 다른 패턴”이 되어 그녀의 “존재의 질서”가 변한다고 한 것은 니체의 영향을 받은 20세기의 철학자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주체성의 문제로 파악한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생성과 차이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성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산의 흐름들과 우리가 만나면서 만들어나가는 자기생산의 과정이다”(재인용 진

은영 257). 그리고 니체의 “생성” 개념을 계승한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생성 혹은 되기’는 한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의 상호 모방이나 동일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결연 관계를 통한 블록을 형성하여 상호 이질성을 가로지르는 소통과 전염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운동이다(238-39). 즉 생성은 특별한 권력의 배치물에 의해 의미생성과 주체화를 강요하는 단일하고 고정된 형식으로 코드화하기를 의도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존재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부단한 변형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의 철학은 모더니스트 뿐 아니라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니체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울프가 작품에서 다룬 자기창조의 문제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한국체대)

인용문헌

-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서울: 책세상, 2006.
- _____. 『니체의 몸 철학』. 서울: 문학과 현실사, 2000.
- 니체, 프리드리히. 『유고(1882년 7월-1883/84년 겨울)』. 니체전집 16. 박찬국 옮김. 서울: 책세상, 2001.
- _____.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니체전집 19. 이진우 옮김. 서울: 책세상, 2005.
- _____.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니체전집 20. 백승영 옮김. 서울: 책세상, 2000.
- _____.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니체전집 21. 백승영 옮김. 서울: 책세상, 2004.
- 서동욱. 「들뢰즈의 존재론과 앙띠오이이푸스 그리고 니체」.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서울: 민음사, 2000. 273-316.
- 진은영.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서울: 그린비, 2007.
- Berman, Marshall.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New York: Penguin Books, 1988.
- Bradbury, Malcolm. "Cities of Modernism." *Modernism*. Eds. Malcolm Bradbury and James McFarlane. New York: Penguin Books, 1983. 96-104.
- Bradbury, Malcolm and James McFarlane. "The Name and Nature of Modernism." *Modernism*. Malcolm Bradbury and James McFarlane. New York: Penguin Books, 1983. 19-55.
- Deleuze, Gilles. *Nietzsche and Philosophy*. Trans. Hugh Tomlinson. New York: Columbia UP, 1983.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0.
- Forster, E. M. "What I Believe." *A Bloomsbury Group Reader*. Oxford: Blackwell, 1993. 165-172.
- Forster, John Burt. *Heirs to Dionysus: A Nietzschean Current in Literary*

- Modernism*.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Kuna, Franz. “The Janus-faced Novel-Conrad, Musil, Kafka, Mann.” *Modernism*. Eds. Malcolm Bradbury and James McFarlane. New York: Penguin Books, 1983. 443-452.
- Lucenti, Lisa Maria. “Virginia Woolf’s *The Waves*: To Defer that ‘Appalling Moment.’” *Criticism* 40.1 (1998): 75-97.
- Minow-Pinkney, Makiko. *Virginia Woolf and the Problem of Subject*. New Brunswick, Rutgers UP, 1987.
- Monson, Tamlyn. ““A Trick of the Mind”: Alterity, Ontology, and Representation in Virginia Woolf’s *The Waves*.” *Modern Fiction Studies* 50.1 (2004): 173-196.
- Nietzsche, Friedrich. *Beyond Good and Evil*. Trans. Judith Norman.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_____. *Daybreak*. Trans. R. J. Hollingdale.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_____. *Twilight of the Idols and The Anti-Christ*. Trans. R. J. Hollingdale. New York: Penguin Books, 1990.
- _____. *The Gay Science*. Tran.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74.
- _____. *Human All Too Human: A Book for Free Spirits*. Trans. Hollingdale, R. J. Cambridge: Cambridge UP, 1986.
- _____.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89.
- _____.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R. J. Hollingdale. New York: Penguin Books: 1969.
- _____. *The Will To Power*.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68.
- Poresky, Louise A. *The Elusive Self: Psyche and Spirit in Virginia Woolf’s Novels*. New York: U of Delaware P, 1981.
- Vandivere, Julia. “Waves and Fragments: Linguistic Construction as Subject Formation in Virginia Woolf.”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2.2 (1996): 221-233.

- Woolf, Virginia. "Modern Fiction." *Collected Essays*. Vol. II. New York: Harcourt, 1967. 103-10.
- _____. "Professions for Women." *Women and Writing*. London: The Women P, 1979. 57-63.
- _____. "The Watering Place."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of Virginia Woolf*. 2nd ed. Ed. Susan Dick. New York: Harcourt, 1985. 291-92.
- _____. *The Waves*. London: Penguin Books, 1992.
- _____. *Writer's Diary*. Ed. Woolf, Leonard. New York: Harcourt, 1982.

Abstract

The Problem of Self-Creation: Reading Woolf's *The Waves*
through Nietzschean ‘Becoming’

Kumjoo Kim

Modernity has poured modern men a maelstrom of perpetual disintegration and renewal, of struggle and contradiction. Nietzsche criticizes the ideology of modernity based on progress and modern men who have made self-preservation and material comfort their goal and no longer create. And he diagnoses the contemporary social world reveals the symptoms of decadence. But he suggests the possibility to renew the world through leading nihilism to an extreme, and deconstructing tradition, value, and morality. So he emphasizes “becoming”, something in flux which does not aim at a final state, does not flow into being. He says the impose upon becoming the character of being—that is the supreme will to power. According to Nietzsche, “the will to power” is the driving force of life, and all valuations are only consequences and narrow perspectives in the service of this will to power. He asserts that evaluation is creation, and truth is not something there, that might be founded or discovered—but something that must be created, and the value of the world lies in our interpretation. Thus he insists that people are creators, and there is no subject but an action, becoming as invention, willing, overcoming of oneself.

The characters in *The Waves* express their anguish in modern society, and some characters get comfort in dreaming alien order. But Bernard creates his own life and himself through his ‘will to power,’ instead of yielding to the demand of mass society. The process of Bernard’s self-creation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Nietaschean idea, ‘becoming’. He questions the stability of world and self. And he affirms the instability and change of them. Thus he says all is experiment and

adventure. This experiment accompanies continual deconstruction and creation. For Bernard, the process of writing is the process of creating his own life and self. His self-creation is becoming of the eternally self-destroying and the eternally self-creating whose symbol is “the waves.”

■ Key words : Virginia Woolf, *The Waves*, Friedrich Nietzsche, becoming, the will to power, self-creation, modernity

(버지니아 울프, 『파도』, 프리드리히 니체, 생성, 힘에의 의지, 자기 창조, 근대성)

논문접수: 2012년 5월 29일

논문심사: 2012년 6월 6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10일